

학교생활

원격 수업 시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과 학생부 기재 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정상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의 평가나 기록은 계속되어야 할 텐데, 원격 수업 안에서 진행한 토론이나 발표, 과제 제출 등 수행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요. 원격 수업에서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또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윤경민(45·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MORE TIP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에서 진행한 토의·토론·화상 발표, 전 교과에서 학생이 수행한 동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연계해 실시한 경우, 원격 수업·과제의 내용이나 등교 수업에서 학생을 관찰·평가한 내용을 학생부에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원격 수업·과제의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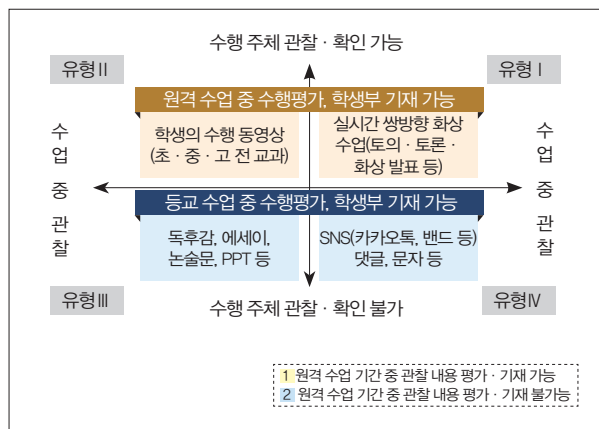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A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이를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격 수업의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여인경 교육연구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했다. 지난해 2학기까지 기약, 가창, 연주, 체육 활동 등 예체능 과목에 한했던 수행 동영상 평가 기준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학생이 제출한 전 교과 수행 동영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학생부 각 항목의 기재 방법은 기본적으로 '2021 학생부 기재 요령'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표_ 학생평가·학생부 기재 개념도



자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입시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곳이 교육청과 평가원으로 다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비 고3 학부모입니다. 올해 모의고사 일정을 확인하면서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 평가원과 교육청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관하는 곳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소희(49·서울 강서구 염창동)

A 평가원 주관 모의고사는 고3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1, 2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번갈아 주관합니다. 고3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는 '전국연합학력평가',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라고 칭하는데, 두 시험의 성격은 다소 다릅니다. 교육청 주관 모의고사는 재학생들의 학력평가를 위해 재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가원 주관 모의고사는 해당 연도 수험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본 수능의 난도를 조정하기 위해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생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관처에 따른 시험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고3	고1, 2	주관(비고)
3월 학력평가	3월 25일(목)	3월 25일(목)	서울시교육청
4월 학력평가	4월 14일(수)		경기도교육청
6월 학력평가 (고3 모의평가)	6월 3일(목)	6월 3일(목)	고3: 평가원(졸업생 포함) 고1, 2: 부산시교육청
7월 학력평가	7월 7일(수)		인천시교육청
9월 학력평가 (고3 모의평가)	9월 1일(수)	9월 1일(수)	고3: 평가원(졸업생 포함) 고1, 2: 인천시교육청
10월 학력평가	10월 12일(화)		서울시교육청
11월 학력평가	11월 18일(목) 2022 수능	11월 24일(수)	고3: 평가원 고1, 2: 경기도교육청
횟수	총 6회	단, 6월 3일(목) 서울 고1, 2 미 실시	

MORE TIP

서울 배재고 장지환 교사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 수험생의 수준 파악을 염두에 두고 신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수능과 비슷해 수능 등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를 지원하는 기준도 된다.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등급과 백분위가 수능과 가깝게 나온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라며 이해를 돕습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